

# CCTV의 '두얼굴'

# 광주 남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들은 범죄 우범 지역에 전·후방 24시간 촬영이 가능한 차량용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을 주차해 놓는다. 이에 월산·주월동 등 범죄 발생이 빈번했던 지역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버스타 택시로 출·퇴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같은 행동은 지난 4월 가스배관을 타고 주택에 침입, 1년 여간 100여 차례의 절도행각을 벌인 20대 남성 검거에 차량 블랙박스 '덕'을 본 뒤 시작됐다.

경찰 측은 "매번 블랙박스를 단 차량 소유주에게 동의를 얻는 것보다 훨씬 확인하기 편리하고 범죄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 지역인 만큼 조기 검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에 크게 늘고 있다.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과 함께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피해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범죄 파수꾼=진선민 민주당 의원이 1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방범용 CCTV 활용 실시간 범인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범 등 1952명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방범용 CCTV에 달미가 잡혔다.

광주에서는 9월 말까지 CCTV에 범죄와 사고 현상이 포착돼 경찰 신고·출동이 이뤄진 건수도 77건이나 됐다. 전남에서는 이 기간 청소년 음주·폭행(47건), 5대 강력범죄(17건) 등으로 235건의 경찰 신고·출동 요청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 5월 운영에 들어간 광주 CCTV 통합관제센터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통합관제센터는 광주 전역에 설치된 2982개의 CCTV를 거미줄처럼 연계해 사건 해결에 한몫하고 있다. 광주·전남 1139개 초·중·고교에 설치된 1만 108대, '자연마을 범용 CCTV'에 달미가 잡혔다.

## 광주·전남 15000여대 범죄 예방·검거 '파수꾼' '24시간 거미줄 감시'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도

2469대 CCTV도 '범죄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우려도=국회가 내놓은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연도별 CCTV 설치 대수' 현황에 따르면 방범용뿐 아니라 재난 감시용·교통 단속용·시설물 관리용 등으로 운용중인 CCTV는 대략 45만2700대, 백화점·대형 마트·놀이 공원 등 민간부문에서 설치한 것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신도 모르게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되는데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달 29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서 발생한 20대 여

성 성추행 용의자로 애꿎은 시민을 지목, 검거하는 '망신'을 샀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를 토대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목한 차량 운전자를 추적한 끝에 불잡았지만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말까지 파악한 CCTV 관련 민원은 6120건으로, 전체 정보 프라이버시권 관련 민원의 20%에 이른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난해 CCTV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건수도 1798건으로 지난 2010년 59건에 비해 30배 이상 급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난 1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제10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에 참가한 남구 주민들이 칠색고싸움(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 놀이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닷새간의 '광주 이야기' 400만명이 찾았다

### '총장축제' 성공리 폐막... '추억의 테마거리' 등 볼거리 풍성

전국 대표 거리축제인 '제10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가 13일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예년과 달리 각 행사에 '광주의 이야기'를 담아내 참가자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 9일부터 13일 까지 5일간 동구 총장로·금남로·아시아문화전당 앞길 일대에서 '추억&힐링'을 주제로 '추억의 7080 총장축

제'를 열었다.

이번 축제에서 동구는 올해 처음으로 광주의 이야기를 담은 거리 퍼레이드(100개팀·1만 명 참석)와 추억의 테마거리를 선보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올해 첫 시도된 '창작공연 콘텐트경연대회'엔 전국 유명 공연팀들이 참석, 지역문화에 활성화와 공연문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새 지평

을 열었다는 평도 받고 있다. 또 축제 기간 금남로·총장로 등 각 상가엔 고객들이 대거 몰려 북새통을 이루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의견도 있다. 동구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내의 문화역량 발굴 및 아시아 문화전당 홍보 등 문화예술 도산재생 등을 바탕으로 옛 청사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는 전체 매대 대금 중 140억원으로 옛 보존병원과 보건청 부지를 매입해 신청사 외부 주차장으로 활용

## 남구 옛 청사부지 287억에 지역업체 매각

광주시 남구 옛 청사 부지가 팔렸다. 남구는 13일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주)중경산업개발과 옛 남구청 사 부지 매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287억 5000만원에 남구청 사 내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토지 1만 8964㎡와 건물 9975㎡를 매각했다.

중경산업개발은 아파트 건설 경험 등을 바탕으로 옛 청사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는 전체 매대 대금 중 140억원으로 옛 보존병원과 보건청 부지를 매입해 신청사 외부 주차장으로 활용

한다는 계획이다. 또 구 청사 주차장 부지에 구민 도서관도 48억원을 들여 건립키로 했다.

남구는 매대 대금으로 어린이공원 조성과 지방채 상환 등을 검토중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청사 임대 사업비로 일부 상환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남구 관계자는 "매대 대금은 외부주차장 조성, 구민도서관 건립 등 현안사업에 쓰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0~50억원 정도를 상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7분  
해질 17시 59분  
달출 14시 56분  
달몰 01시 25분

대부분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크겠다.

광주	맑음	12/26°C
목포	맑음	13/25°C
여수	맑음	16/23°C
나주	맑음	8/28°C
완도	맑음	14/26°C
구례	맑음	8/26°C
강진	맑음	10/26°C
해남	맑음	9/26°C
장흥	맑음	10/26°C
순천	맑음	7/25°C
영광	맑음	10/26°C
영도	맑음	11/25°C
전주	맑음	11/27°C
군산	맑음	11/28°C
남원	맑음	9/27°C
혁신도	맑음	17/21°C

식중독지수 1 자외선지수 1 뇌졸중지수 1

경고 보통 보통

목포	09:43	03:00
여수	05:06	11:03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3/20	12/17	9/19	9/20	10/21	12/20

## 5·18 당시 '영장없는 체포' 법원 "전두환 법적책임 없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전국에서 자행한 '영장없는 체포'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근 부장판사)는 이모(74)씨와 그의 가족이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보안사령부 대공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비상계엄이 전국에 확대된 1980년 6월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수사관은 영장을 제시하기를 거부, 왜 연행하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이씨는 광주에서 시민군과 계엄군이 대치하던 5월23일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서울에 뿌리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2010년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해 5월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무죄 판결을 근거로 이번에는 민사소송을 냈다. 그는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구금되고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대한민국에 불법행위를 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장 없는 체포를 계엄령이 허용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혹행위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룬반비)

구분	영업시간	상인도(100석)	취학도(90석)	미취학도(68석)
평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062)671-1199

---

### 유스퀘어점 YONAMJA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홍골레 Yongol ₩10,800	베이컨 카르보나라 Bacon Carbonara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핫 스파이스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하니고르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062)673-7979

### 광주·전남 프리모남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23년 가발명가!

신제품 가격중얼가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